

38장. 구덩이 속의 예레미야

1.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 (38:1-6)

예레미야는 시위대의 뜰에서 구금 상태로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가 항복할 것을 권하셔서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시드기야에게 말하였다. 시드기야는 강하게 항의하는 방백들에게 양보하여 예레미야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에서 시드기야가 연약하고 무능한 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백성의 방백들은 시위대의 뜰에 있는 예레미야를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었는데 그러한 곳에 던져 넣은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징계하심을 순하게 받아들이는 대신에 거역한 것이다.

2.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진 예레미야 (38:7-13)

진흙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를 구한 것은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었다. 그는 시드기야에게 찾아가서 예레미야를 가둔 것은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서 주려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왕은 30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끌어내게 하였다. 예레미야는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시위대 뜰에 머물렀다.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는 여호와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다(39:16-18).

3.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마지막 대화 (38:14-28)

왕은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예레미야는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만이 그가 살 길이라고 답하였다(38:17-18).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이미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그가 항복하면 그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지만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그 성이 바벨론 사람에게 함락되고 왕궁의 여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며, 그의 발은 진흙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였다(참조 38:6).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불에 탈 것이라고 하였다(38:19-23).

시드기야는 그 말에 대하여서 비밀을 지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머물게 하였다.

38장 익힘 문제

1. 1)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들이 살길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2절)
- 2)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은 스바다 등 여러 사람들은 시드기야에게 그를 어떻게 하라고 청하였습니까? (4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그들의 말을 들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어디에 던져 넣었습니까? (6절)
2. 1) 예레미야가 진흙뿐인 구덩이에 갇혀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시드기야에게 말하여 그를 거기에서 건져 내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7-9절)
- 2)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참조 39:15-18)
3.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몇 사람이나 필요하였습니까? (10절)
4.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길이라고 거듭 말하였으나 왕은 어떤 사람들이 그를 조롱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까? (19절)
5. 예레미야는 언제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렀습니까? (28절)